

올해 첫 '전국 단위 성적 채점'... 코로나19 수능 리허설

6월 모의평가 D-3

高3, '재수생과 첫 대결'
달라진 고시장 현장 적응
학습 덜 된 과목 파악 중요

“결과보다 학습전략 마련”

오는 18일 '6월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자신의 전국 단위 위치를 처음 확인하게 될 고3 수험생이 바짝 긴장했다. 학력평가와 달리 모의평가는 졸업생도 응시가 가능해 사실상 고3과 재수생이 실력을 겨루는 올해 첫 시험이다. 실제 수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예비 수능의 장'으로 불릴 만큼 입시·학습 모두에서 중요하지만, 시험 성적에 연연하기 보다는 학습 계획에 활용하라고 입시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앞서 4월에 치른 학력평가는 전국 단위 공동채점 및 성적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5월 학력평가도 일부 지역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치르는 고3 학생

/뉴스시스

수험생의 등급이 무산돼 해당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르고 공동채점에서 제외됐다. 이에 고3 수험생이 자신의 객관적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다.

실제 수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6월과 9월 두 차례 수능 모의평가를 통해 그해 응시 집단의 수준을 점검한다. 새로운 문제 유형 검토는 물론이고,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유지할 것인지 판단한다.

입시 전문가들은 6월 모평 결과가 이

전보다 좋지 않으리라 전망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6월 모평 성적이 고1, 2 때보다 성적이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특히 탐구 영역에서 재수생들의 참여로 이전보다 성적이 매우 낮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므로 6월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시험 결과 그 자체보다는, 시험 이후 이를 어떻게 학습적 측면에 활용할 수 있을지를 더욱 고민해야 한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김

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실제 그간 치러진 6월~9월 수능 모의평가의 경우에도 그해 새롭게 출제된 유형이 수능에도 유사하게 출제되는 경향이 강했다. 따라서 모의평가를 치르고 나면 반드시 전 영역 문제를 꼼꼼히 분석해 수능 전까지 꾸준히 반복 학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6월 이후의 학습 계획 수립에도 이번 수능 모의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예년과 같은 전국 단위 성적표를 받지 못해 자신의 학습 성취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6월 모평 시험 결과를 토대로 스스로 학습 방식을 점검하고, 12월 수능 전까지의 내 학습 계획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병진 소장은 “전 영역에서 대체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면 현재의 학습 방식을 유지해도 되지만, 투자 시간 대비 지나치게 성적이 낮은 과목이 있거나 전반적으로 학습 능력이 오르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 자신의 학습 스타일 및 향후 계획을 다시금 점검하라”고

조언했다.

6월 모평 환경을 오는 12월 예정된 수능시험에 대한 '고사장 리허설'의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바뀐 고사장 환경에서 실제로 처음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불편함은 없는지, 점심시간 연장 및 이에 따른 3교시 이후의 변경된 시험시간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등 6월 모의평가 당일의 모든 시험 실시 과정을 꼼꼼히 복기하고 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영역 전체를 살피기보다, 전략적인 학습 계획도 필요한 시기다. 김 소장은 “무작정 전 영역 전 범위를 다 공부하기 보다는, 현재 학습이 가장 덜된 과목이 무엇인지 살펴 이를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한다”라면서 “영역별 취약범위나 문제 유형을 추려 이를 집중적으로 학습하라. 시험 직전까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자주 틀리는 오답 유형과 함께 암기 내용을 따로 정리해 쉬는 시간마다 볼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구직자 75% “코로나에 채용시장 격변”

잡코리아·알바몬 구직자 설문
화상 등 면접방식 비대면 대체
현대·한화 등 수시채용 트렌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채용시장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언택트 채용이 확산되면서 화상면접 도입 및 온라인 인적성검사 등 기업들의 채용 프로세스도 달라지고 있다.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신입직 구직자 38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4.8%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채용시장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반면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한 구직자는 25.2%에 그쳤다.

이들 구직자들이 꼽은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달라진 채용시장 트렌드로는

'화상면접 등 AI면접으로 대체'가 응답률 48.7%로 1위에 올랐다.

실제 최근 많은 기업들이 화상면접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카카오는 이미 올해부터 상시채용 지원자 면접을 모두 화상면접으로 진행했고,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도 신입 개발자 공채 과정을 모두 온라인으로 대체했다.

LG전자의 경력직 지원자 실무 면접도 화상면접을 통해 진행됐으며, SK텔레콤도 신입사원 정기 채용에서 자체 개발한 '그룹 영상통화' 솔루션을 활용해 화상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CJ도 그룹 공채에서 웹캠을 통한 비대면 면접을 추진할 예정이다.

2위는 '수시채용 확산(34.5%)'이 꼽혔다. LG그룹의 경우도 올 하반기부터 기존 상·하반기 정기 채용 방식을 폐지하고 신입사원 채용 방식을 연중 상시

선발 체제로 전환했다.

현대·기아차그룹, 한화그룹 등도 정기 채용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할 때 인재를 뽑는 수시채용을 도입하고 있어 상시채용이 대기업 채용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기업들의 채용설명회도 언택트로 변하면서 챗봇(Chatbot)도 같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에는 인사담당자들이 박람회나 기업설명회에 직접 참여해 답변을 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AI채용의 성장과 함께 챗봇이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해 원하는 답을 해주고 있다.

변지성 잡코리아 팀장은 “정기공채 폐지 및 언택트 채용 확산 등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의 채용 프로세스가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구직자들도 이에 따른 취업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현진기자



대학생 마음 담아... KT '온라인 라이브 대학축제'

KT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취소된 캠퍼스 축제를 기다리는 대학생의 마음을 담아 지난 12일 저녁 '온라인 라이브 대학 축제'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뉴스시스

순천향대, 고창군과 식초산업 육성 맞손

공동 프로젝트·균주개발 등 협력

순천향대 PMC는 최근 전북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창군 식초산업 육성과 과학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두 기관은 고창군 식초산업 발전을 위한 발효식초 산업 과학화 지원과 공동연구 수행 등을 포함한 관학 협력과 공동발전에 필요한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상호발전과 우의 증진을 위한 협력을 바탕으로 ▲식초산업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공동 프로젝트 기획 및 협력 ▲식초의 기능성, 균주개발, 유효성 평가 등 고창군 발효식초산업 과학화 지원 ▲고창군의 발효식초산업 발전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유기상 고창군수(왼쪽)와 송호연 순천향대 PMC센터장(오른쪽)이 지난 9일 오후 식초산업 육성과 과학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관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순천향대

을 위한 기초연구 개발지원 및 육성 등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세종대

'산업별 취업특강' 진행

세종대 대학일자리사업단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산업별 취업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취업특강은 세종대 재학생들이 주요 산업과 직무별 역할을 이해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은 ▲제조업 ▲통신업 ▲금융업 ▲화장품산업으로 구성되며, 코로나19로 인해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강의는 각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시작으로 주요 기업을 분석한 뒤 직무별 소개 및 역할·역량 확인으로 마무리 된다. /이현진 기자

심상준 교수, '미션이노베이션 챔피언' 선정

고려대

이산화탄소 유용물질 전환 기술개발

고려대는 심상준(사진) 화공생명공학 교수와 교수팀이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한 청정에너지 기술분야에서 기술혁신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전문가를 선정하는 '미션이노베이션 챔피언'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미션이노베이션'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계기로 청정 에너지기술의 공공부문 연구개발(R&D) 투자를 2021년까지 2배로 확대하기 위해 구성된 다자협의체로써, 현재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25개국이 참여 중이다.

그 중 '미션이노베이션 챔피언'은 2019년부터 미션이노베이션 사무국(챔피언 운영팀)에서 회원국별로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한 청정에너지 기술분야에서 기술혁신에 가장 크게 기여한 전문가 1인을 선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심상준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위



탁을 받아 미션이노베이션 사무국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통해 올해 3월 한국의 미션이노베이션 챔피언 후보로 추천됐다.

미션이노베이션 챔피언운영팀의 글로벌 심사를 통해 2020년도 한국의 미션이노베이션 챔피언으로 최종 선정됐다.

심상준 교수는 지구온난화와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가장 큰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태양광과 미세조류를 활용해 바이오연료, 바이오플라스틱, 식품, 사료, 고부가 단백질 및 의약품 등 다양한 유용물질로 효과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원천기술 개발부터 대규모 실증화까지 성공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인 청정에너지 혁명을 주도하는데 다양한 기여했다.

/이현진 기자